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TF 본격

전북자치도, TF 5개 반 중심 전담체계 구축
대상자 173만631명... 최대 45만원 지급
21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시작

전북자치도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7월 10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TF 5개 반 중심의 전담체계를 구축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전담 TF는 사업총괄, 집행관리, 현장대응, 행정지원, 언론대응반으로 구성됐으며, 각 반별로 지급 대상자 검증, 상품권 확보, 홍보 전략 등을 총괄한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정부가 지원 기준을 6월 18일 주민등록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도민 173만 631명이다.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명부는 명부 검증 절차를 거쳐 16일 이후 확정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원된다.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지급액은 일반도민 15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다. 여기에 전주, 완주, 군산, 익산 거주자는 3만 원, 그 외 10개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지류·카드·모바일), 선불카드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받은

소비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된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전자제품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14일부터 시작되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면 19일부터 지원금액, 신청기간, 방법, 사용기한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앱, 카카오오픈,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소비쿠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 분청 실국장과 시군 공무원, 금융기관 직원을 1:1로 매칭한 '신속지원 전담반'도 함께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과 민원을 즉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도민의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조치"라며 "전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TF가 중심이 되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선관위, '공석' 도교육감 재선거 미 실시 결정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10일 위원회의를 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북선관위는 대법원 판결문(법금 500만원, 당선무효형)을 통지받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됐다.

이번 의결은 △선거일(2025년 10월 1일부터 임기만료일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전임기간) △재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약 211억원) 및 행정 인력 수요(약 1만여명) △2014년 이후 시·도지사 및 교육감 재·보궐선거 사유 발생 시 선거 미 실시 결정사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10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TF 5개 반 중심의 전담체계를 구축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AI 시대, 전북 콘텐츠 산업 미래 열 첫걸음

도-전북콘텐츠산업협회, 'JBCORECON 2025 포럼' 개최
AI 기반 콘텐츠 생태계 구축 위한 정책 등 융합 전략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콘텐츠산업협회가 주최한 'JBCORECON 2025 포럼'이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기술과의 융합을 중심으로, 전북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관련사진 3면〉

'JBCORECON'은 'CORE+CONTENT'의 합성어로, 콘텐츠를 중심으로 기술, 산업,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시도하는 민관 포럼이다. 2022년 출범한 전북콘텐츠산업협회는 "기술적 배경이 없는 창작자들도 AI 도구를 통해 콘텐츠 실험이 가능해진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청중의 공감을 얻었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전북 콘텐츠 산업의 현실 진단과 함께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김성규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 한동승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 설치희 '프롤러' 대표, 그리고 두 명의 기초담당 발표자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조민호 협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서는 △우수 창작자 발굴 및 육성 체계 구축 △민관 협업 확대 △AI 기반 교육 및 기술 지원 △지역 콘텐츠 유통·마케팅 강화 방안 등이 다뤄졌으며, 특히 "콘텐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조민호 전북콘텐츠산업협회 회장은 "K콘텐츠 르네상스와 AI 시대에 맞는 창작 방식과 산업 모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북이 콘텐츠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산업과 창작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끄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고유한 문화자원과 스토리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라며 "이러한 지역의 정체성을 AI 기술과 접목시켜 새로운 융합 콘텐츠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작은빨간집모기
도내서 올 첫 발견
일본뇌염 '주의보'

도 보건환경연구원
10월까지 채집·분석
"고위험군 백신접종 실시
야외활동시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해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도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모기는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 조사지점인 완주군 상관면의 한 축사 주변에서 지난 8일 채집된 것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정기적인 모기 채집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을 위한 필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는 전남과 제주에서 가장 먼저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되며 3월 27일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전북에서는 7월 들어 첫 발견됨에 따라 도내 감시체계도 가동될 예정이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 축사, 집 주변의 고인 물 등에서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는 암컷의 소행 모기다. 여름철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개체 수가 급증하며,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성 급성 중추신경계 감염병으로, 대부분 가벼운 증상에 그치지만 일부는 뇌염으로 진행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현재까지 특이적인 치료법이 없어, 백신 접종과 모기 물림 차단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하고, 야외활동 시 모기 기피제 사용과 긴 옷 착용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부안군
BUAN-GUN



물놀이 준비 완료!

부안 해수욕장 개장

7월 4일 ~ 8월 17일

격포, 변산, 고사포, 모항, 위도







